

## Henkel, 현대미술 작가 지원



글로벌 생활용품 생산기업인 Henkel이 현대미술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.

대안공간 루프와 함께 진행하는 <2011 이노아트 프로젝트>는 Henkel 브랜드의 기조인 혁신(Innovation)과 예술(Art)이 결합된 창의적인 프로젝트로, 2011년 3월 대안공간 루프에서 열리는 전시로 시작해 매년 3명의 작가를 선정해 진행된다.

3월10일부터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되며 이동기, 유승호, 홍경택 등 국내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한다.

Henkel 김나연 차장은 “이노아트 프로젝트는 중진 작가들의 새로운 도전정신, 혁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, 기존의 평면적인 후원전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국의 혁신적이며 예술적 가치가 성숙한 작가들을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1/03/04>